

선지식 서산의 눈으로 그려낸 사바세계



유교-억불, 개신교-혜불 등 역사의 거울에 투사한 대하소설... 자승 스님도 '관심'

억불송유의 조선시대. 그 중 배불이 가장 극심했던 조선 중종 15년에 태어나 승병장으로 활약했던 서산 대사(1520~1604). 스님은 임진왜란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키 호국신장이었음 뿐만 아니라, 호법신장으로 조선의 적불을 맨몸으로 타파하고 선교불이(禪敎不二) 한국불교 교단의 기틀을 세운 조선불교의 중흥주이다.

서산 스님의 삶·사상을 조명한 대하소설 <서산>이 출간됐다.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과 저자 신지견 작가는 4월 22일 <서산> 전 10권 제1부 5권 발간을 기념한 기자간담회 열고 <서산> 출간과 관련한 소식을 밝혔다.

저자 신지견 작가는 수년전 이번 소설 집필에 앞서 <서산사상과 신자유주의>를 출간한 바 있다. 그랬던 그가 소설로 다시 서산 대사를 조명한 것은 해남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의 계속된 자극(?) 때문이었다.

신 작가는 "범각 스님이 서산 대사의 큰 사상과 공적이 자꾸 잊혀져 가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때 <서산사상과 신자유주의>가 집필됐다"고 말했다.

신지견 작가는 <서산사상과 신자유주의> 집필을 위해 동국대 도서관 등에서 3개월 여 동안 자료수집을 했다. 국회도서관, 성균관대 도서관 등을 찾았지만 서산 대사 자료는 상당히 빈약했다. 그나마도 유가(儒家)의 시각으로 쓰여져 서산 대사가 폄하된 자료가 다수였다.

신 작가는 "자료 수집을 하면서 조선조 유가 권력에 의한 척불이 상상을 초월했다는 것을 알았다. 후



대의 연구조차 유가적 시각에 맞춰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승가에서 저술된 서산 대사 관련 문헌조차 유가의 시각을 답습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은 "서산 대사는 임진왜란에서 큰 공적을 세웠음에도 동시대에 활약한 이순신 장군의 성역화 사업과는 비교도 안될만큼 소외돼 왔다"고 말했다.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과 신지견 작가는 서산 대사를 대중에게 제대로 잘 알리려면 문학작품이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서산 대사가 살다간 척불의 조선시대가 개신교에 의해 혜불 당하는 현재와 같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소설 <서산>은 그렇게 쓰여지기 시작했다.

스님과 작가의 의기투합으로 집필된 <서산>은 '국가'와 '권력'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된다. 책

은 오늘날 한국사회의 불교평과 구조적 모순의 기원을 우리 역사에서 찾고 있다.

신 작가는 "조선의 성리학은 고구려·백제·신라, 고려로 이어진 불교적 전통을 극단적으로 이단시화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저자의 이러한 시각은 책에 오롯이 담겨있다. 신지견 작가는 책에서 그릇된 양반 문화와 부패 구조에 대항하는 분자적 탈주의 흐름을 그려냈다. 혁명을 꿈꾼 세력들이 임진왜란을 만나 혁명에의 꿈을 접고 민족 존망의 전쟁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를 극명하고도 유려하게 담았다.

책은 역사적 관점주의에 입각해 소설적 허구와 역사적 '사실(史實)'의 줄타기를 능숙하게 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 작가는 "한국의 역사는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진 사람이 없이, 불공정한 룰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정치 양태를 보여 왔다"며 "신자유주의는 조선 사대주의의 새로운 양상에 다름 아니며, 부를 누리는 소수의 특권계층은 국가의 후속적인 정책적 배려 속에 부를 향유한다. 이것은 조선 시대 사대부가가 누렸던 권익을 능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무한경쟁의 시장논리를 공정사회라 부르짖으며 불공정한 경쟁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어찌 공동선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신지견 작가는 "서산 대사는 권력을 가졌거나 부를 가진 분이 아니었다. 더구나 경쟁을 부추긴 분이 아니었다. 그러함에도 국가가 위기에 섰을 때 칼을

들고 일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우리 모두의 국가임을 보여 주었다. 공동선을 온몸으로 보여 주었던 선지식이었다"고 말했다.

책은 '국가가 무엇이나?'라는 화두를 내세우며, 이를 조선불교사를 통해 풀어간다. 당시 시대 상황과 연계해 재구성된 '있을 법한 이야기' 등은 허례에 가까운 유가적 잣대로 사회를 양반 상놈의 양극화로 몰아가면서 부패해 가는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보여 준다.

'있을 법한 이야기'란 '국가의 완전한 개혁'이다. 책은 철학과 지도력이 부족한 집권층의 부패로 사회가 양분화되어 북방 변경과 남쪽 바닷가에 발호하는 적들의 모습에서 오늘의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게 한다. 권력이 부패하면 개혁 세력이 움직인다. 조선조 내내 그러한 세력들이 잠복해 있었다. 책은 실제 있었던 임꺽정과 정여립 사건도 담았다.

신 작가는 "오늘날 우리 현실과 무엇이 다른가를 보여 주려 했다.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서산사상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게 나타내려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의 제1부(전5권)에는 꾸준히 조직을 결사해 온 '사사'가 개혁[革命]을 하려고 일어서다가 을묘왜변이라는 뜻하지 않은 왜구의 침탈로 유보하게 되고, 다시 개혁을 꿈꾸는 분위기의 중심에서 서산 대사를 그려냈다. 대구대 김춘일 교수는 책을 읽은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소설 <서산> 뒤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음을 알게 한다. 그 강에서 선어(禪語)를 한 마디씩 건져

올려, 그것도 작가의 이야기로 불교의 큰 틀을 설명해 낸 재간이 신지견이 아니고는 쓸 수 없는 작품이다. 더구나 이 소설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부패한 국가에서의 개혁 방향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 서산대사가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점이 흥미를 끈다. 소설 전반부 군데군데 유식학(唯識學)의 논조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산'이라는 큰 인물을 어떻게 형상화해 낼지 그것은 작가만이 알 수 있다. 후반부 5권이 매우 기대가 되는 작품이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출간 격려의 말'에서 "오늘날 한국 불교 교단의 대부분이 서산 대사의 후손으로 이뤄져 조선 불교를 '서산 불교'라고도 한다"며 "소설 <서산>의 발간을 계기로 해남 대흥사의 서산 대사 유적 성역화 사업 등 대사의 사상을 기리는 데 중단 차원의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책은 나라 안팎으로 급박하게 전개됐던 조선 중기의 역사적 현실 상황들을 작가 신지견만의 시각과 문체로 풀어내고 있다. 유·불·선을 넘나드는 치밀한 구성, 속도감 있는 문체, 짜임새 있는 줄거리와 개성 있는 등장인물 등은 읽는 이로 하여금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한다. 신지견 대하 장편소설 <서산>은 역사의 거울을 통해 진정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서산 | 신지견 지음 | 연인M&B | 각 권 1만5000원 | 조동성 기자



“사람답게 살기 위한 고민을 담았다”

명진 스님 '스님은 사춘기' 출판 기념회서 새출발 알려

"여러 신도님들과 함께하고 불교를 전하기 위해 내놓은 책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명진 스님이 봉은사에서 천일기도를 하면서 일요 법회 때 신도들에게 법문한 내용을 엮어 '스님은 사춘기'라는 책을 펴냈다. 환갑을 맞은 스님은 사춘기처럼 살고 싶은 마음을 제목에 담았다고 한다. 신도들과 각 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효창동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출판 기념회가 4월 27일 열렸다.

출판 기념회에서 명진 스님은 "신도님들 덕분에 발간될 수 있었던 책이다. 1000일 기도를 할 때도 신도님들의 동참이 없었다면 3일 만에 그만뒀을 것"이라며 봉은사 신도들에게 공을 돌렸다.

<스님의 사춘기>에서 명진 스님은 "마음에서 힘을 빼라"고 강조한다.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과 길들여져 있던 습관, 긴 시간 익혀온 지식과 정보 등

을 모두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스님은 마음에서 힘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것을 권한다. 이 질문으로 시작해 '안다'는 모든 생각이 비워지면 그때 완전히 힘이 빠진 자리에 무한한 지혜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총 5장으로 구성된 <스님의 사춘기>는 스님의 어린 시절부터의 일대기가 함께 담겨 있다. 어머니와 동생의 죽음부터 해인사 출가, 범주사에서 탄성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계를 받던 일, 민주화 운동 참여, 봉은사 주기를 맡기까지의 이야기들이 정리돼 있다.

1978년 겨울 명진 스님이 해인사에 방부를 들 때다. 스님은 당시 방장인 성철 스님이 법문을 시작하려고 하자, "성철의 목을 한칼에 쳐서 마당 밖에 던졌습니다. 그 죄가 몇 근이나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성철 스님은 "백골연산이다. 저노무 자숙,

열아홉 살 때부터 알았네 몰랐네 하고 다니더니 아직도 저러나, 사기꾼 같은 놈!"이라고 말했다.

명진 스님은 당시 자신이 하루 빨리 깨달음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기득 차 있었다며 깨달으려는 욕심 등 일체 구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스님은 여섯 살 때 어머니를 잃고, 스물 다섯 살에 동생을 잃으면서 죽음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특히 명진 스님은 "내 한평생 중 노릇은 동생이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할 정도로 동생의 죽음은 스님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명진 스님은 "생사에 대한 문제, 존재에 대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영예롭지 않으며 극락에 가도 즐겁지 않다. 나고 죽는 이 주인공의 본래 모습을 바로 알 수 있다면 나는 하루에 천 번 필필 끊는 기름 가마솥에 들어가고, 천 번 쇠조羹이로 몸을 씻고 토막 내는 그런 지옥이라도 아무 거리낌 없이 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스님은 사춘기 | 명진 지음 | 이출 | 1만3000원 | 박기범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 20~26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한 권으로 읽는 법화경	보경	민족사
3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4	스님은 사춘기	명진	이출
5	붓다의 치명적 농담	한형조	문학동네
6	LA에서 온 편지	이원익	불교시대사
7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8	선방일기	지허	불광출판사
9	송강스님의 백문백답	송강	도반
10	다기나까야	전재성	한국배아리성전협회

*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신간! 56년 전, 법정스님이 아우에게 보낸 미공개 친필편지를 만나다!

마음하는 아우야!

울지 마라, 울지를 마라. 부디 불행에 굽히지 말고 살아라.

출가하는 청년법정의 고뇌와 가족에 대한 애뜻함. 방황하는 아우에게 들려주는 형님의 진솔한 가르침. 이십대 젊은 날의 법정스님이 아끼던 책들과 친필 속에 담긴 멋. '무소유' 책 이전, 알려지지 않았던 법정스님의 인간적인 여백을 만나다!

희망과 용기가 필요한 이 땅의 모든 아우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

"흔들리고 방황하던 열다섯, 열여섯.....스무 살의 제게 스님의 편지는 뜨거운 여름 날 시원한 바람이요. 깊은 산사의 감로수였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혼돈의 성장기를 맞이한 청년들에게 법정스님의 편지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건너지 힘든 강을 만난 모든 이들에게도....."

-본문 <역은이 글> 중에서

박성직 엮음 / 양장 · 울림 친필편지 원본사진 수록

nockyawon@gmail.com/070-8812-7160